

## 2016 년 6 월 26 일(주일) 말씀과 묵상(1) “하나님을 ‘야다’하다”(호 6:1-6)

### <도입>

세상 많은 영역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영역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며 삶의 실재(reality)에 있어서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예: 예술가의 영적의미와 심리학자의 영적의미.

### [1]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의미

기독교에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격적”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서 어떤 5, 6 차원 세계로 들어가 엄위로운 음성을 듣고, 그 신비에 도취되는 것은 영적이라기보다 은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인격적 → 존중하고 들어주고 서로 교통하는 것(사랑)을 전제한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격적이면 영적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이면 영적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교통하는 것(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은 영적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불렀습니다(롬 12-14 장 참고).

### [2] 말씀 묵상의 목적 “하나님을 알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단된 지 백 수십년이 지나고 북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200 년 왕조에 19 명의 왕(9 개의 왕조)이 바뀌고, 암살과 반란으로 왕위 찬탈이 빈번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앗수르라는 제국이 힘을 과시하며 이 민족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빌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우상에게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니까 겉으로 보기에 매우 종교적이고, 성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프고 슬픈 심정을 전해 받고 자신도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필수 조건은 논리와 이성으로 백성을 설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프고 기쁜 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특별히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별 볼일 없이 보이고 백성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습니다.

오늘 날 영적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슬픔과 아픔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정돈되고, 더 완벽하면 좋다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사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메시지를 담을 마음이 크고 넓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격이 좁쌀 만해도(누구나 그러함) 하나님의 마음의 진수를 담기에는 충분합니다. “나를 알아 다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알다’의 히브리 말은 ‘야다’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교제함으로 서로 인격이 존중되고 받아주는 가운데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양식집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 [3] 묵상의 길

'매일 성경'을 사용하여 조금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묵상 본문이라면 하루에 한 절만 진지하게 붙들어도 영적 수평선이 열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단락이 주어졌을 때, 묵상할 절들이 많으면 자신에게 가장 와 닿는 구절을 택하여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 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구절이 마음에 닿았다면, 눈을 감고 여러 번 읊조려봅니다. 그러다가 왜 선지자는 힘써 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여쭙어 봅니다. 주님, 왜 선지자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했습니까? 그리고 기다립니다. 마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러나 너무 오래 안 떠오르면 그 미해결 성구를 하루 종일 읊조려야 할 말씀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매일 말씀 묵상의 줄기입니다.

#### <맺음>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핵심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이라는 것. 인격적 관계는 서로 받아주고 존중하고 대화하며 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과 영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야다)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나를 강화/정결케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의 세계로 매일 초청받습니다. 이 성스러운 축복의 세계에서 주님과 야다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 묵상 생활을 하셨는지요? 묵상 생활을 통해 얻은 유익이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봅시다.
2. 당신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 있습니까?(위의 내용 참조)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까?
3. 앞으로 나의 말씀 묵상 생활에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묵상 생활의 궤도를 어떤 면에서 수정해야 할 지, 또는 강화해야 할지를 말씀해 보세요.